

GS칼텍스, 연세대 산·학 협력관 기공

GS칼텍스와 연세대학교는 산·학 연구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2월15일 GS칼텍스 산·학협력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첫 삽을 뜬 GS칼텍스 산·학협력관은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454m², 연면적 4647m²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공사비용은 GS칼텍스가 전액 지원한다.

GS칼텍스 산·학협력관에는 신에너지 관련 연구를 위해 GS칼텍스와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가 입주하고, 2007년 9월 연세대에 준공된 GS칼텍스 수소스테이션과 함께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에너지 분야의 산·학협동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공식에는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를 비롯한 김한중 연세대 총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학저널 2008/02/15>